

인도에 1분만 정차해도 과태료...상인들 “숨통 트인다”

인도 불법주차 주민신고제 첫 날...남구 효천2지구 상가 골목 가보니 가게 앞 인도 위 ‘개구리 주차’ 주민들 직접 신고 가능 “15분 유예 없어져 불법 주·정차 감소” 지자체도 반색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전 지자체로 확대 시행된 첫 날인 1일 오전 10시께 광주 남구 행암동 효천2지구의 한 골목길에는 여전히 인도에 한쪽 바퀴를 걸치는 일명 ‘개구리 주차’를 한 차량 50여대가 늘어서 있었다.

이 곳 주민들은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이날은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기대를 내비쳤다. 구청 단속에 매달리지 않아도 직접 불법 주·정차 차량들을 신고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A씨는 “인도에 바퀴를 반쯤 걸친 차들이 가게 앞까지 점령해서 손님들이 불편하다고 아우성이다”며 “날이면 날마다 구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나와도 해결이 안됐는데, 이제 주민들이 직접 불법 주·정차 차량들을 신고할 수 있게 됐으니 숨통이 좀 트일까 기대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인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인도를 추가했다. 기존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은 소화전·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소·횡단보도·초등학교 정문 앞 등 5곳이었다.

이달부터는 주민신고제 확대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나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주민 신고가 가능해졌으며,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됐던 신고기준도 1분으로 통일됐다.

1일 불법 주·정차 단속 현장에 나선 지자체 교통지도 담당 직원들도 주민신고제 확대를 반기는 분위기였다.

매일같이 불법 주·정차 신고나 민원접수가 많이 접수된 지역을 파악해 하루 종일 단속했으나, 그동안은 불법 주·정차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남구청 교통지도 담당자는 “인도에 대놓고 주차한 차를 단속하더라도 유예시간이 15분이나 되다 보니 대부분은 그 전에 벌을 마치고 자리를 떠나 버리고, 다음에 또 불법 주차를 반복하기 일쑤였다”고 지적했다.

이날 광주 남구청 교통지도와 직원과 동행한



광주시 남구청 교통지도 담당자가 1일 오전 10시께 남구 행암동 효천2지구에서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효천2지구 불법 주·정차 단속 현장에서는 이같은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양쪽 인도에 불법 주차된 차량 사이를 지나며 단속을 시작하자 차량 내부에서는 “자동단속 모드” “수동단속 모드” 기계음이 반복되며 단속 카메라에 인도를 조금이라도 침범하면 차량의 번호판이 찍히고, 카메라가 찍힐 때 나는 종소리가 연달아 울려 퍼졌다. 이어 차량 외부에서는 불법 주차 단속의 시작

을 알리는 사이렌을 울리고 차량 위에 설치된 360도 회전하는 단속 카메라가 불법 주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찍었다.

얼마 안 가 불법 주·정차 차주들이 경고를 듣고 인근 은행, 마트 등에서 뛰쳐나오기 시작했다. 은행 일을 보느라 잠시 인도에 주차했다는 한 시민은 단속 현장을 보고 황급히 뛰쳐나와 “잠깐 은행일만 봤다”며 차를 즉시 옮겼다. 이어 인근 마트에서 아이

와 함께 장을 보던 시민도 사이렌 소리를 듣자 마트에서 나와 짐을 신고 “지금 갈거예요”라며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이날 최소 단속됐던 51대의 인도 불법 주·정차 차량 중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고작 15대에 불과했다. 대부분 차량들이 단속 유예시간인 15분 내로 차량을 옮겨버렸기 때문이다. 차량이 떠난 자리에는 금세 다른 차량이 찾아와 다시 불법 주차를 했다.

교통지도 담당자는 주민신고제로 적발된 경우는 공무원이나 CCTV 등에 적발됐을 경우와 단속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직접 신고하는 주민신고제로 적발되면 단속 유예시간이 1분에 불과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똑같이 인도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라도 교통지도 공무원이나 CCTV에 적발되면 15분의 유예시간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는데, 그 한계점이 없어진 것이다.

교통지도 담당자는 “대부분은 15분 사이 벌을 내리고 자리를 떠나버리는데, 1분만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불법 주·정차 차량이 이전보다 확실히 줄어들 것 같다”며 “주민신고제가 더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야 불법 주·정차 문제가 줄어들 것이다”고 말했다.

/글·사진·장영명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여수공항 항공 교통량 감소 두드러져

상반기 하루 평균 각 45대·38대...4.3%·20.8% 줄어

올해 상반기 국내선 항공교통량이 지난해 대비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공항과 여수공항의 항공교통량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항공교통량 집계 결과 지난해 대비 광주공항과 여수공항의 일 평균 항공교통량이 각각 4.3%(47대→45대)와 20.8%(48대→38대) 감소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기는 지난해 대비 약 31.0% 증가한 하루 평균 1941대(상반기 총 35만 1000여 대)에 달했지만, 광주·여수·제주·김포공항 등 국내선 위주의 대다수 공항은 항공교통량이 감소했다.

특히 여수공항의 일 평균 항공교통량 감소율이 전국 주요공항 중 가장 컸다. 반면 인천공항과 김해·대구공항의 일 평균 항공교통량은 증가했다. 광주공항은 올해 상반기 총 8146대의 항공기가 이용했고, 여수공항은 6908대의 항공기가 오갔다.

올해 상반기 항공교통량은 지난 2019년 대비, 84%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항공 수요 증가에 따라 2023년 4월을 기점으로 하루 평균 2000대를 넘어선 항공교통량이 상당량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코로나로 인해 해외 여행이 불가능 한 점 때문에 항공사들이 국내선 위주의 운행을 했다가 최근 국제선으로 운행 스케줄

을 변경한 탓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중 노선 항공교통 수요는 아직 더딘 가운데, 일본과 동남아 지역 중심의 신규 취항·증편 등에 따라 국제선이 전년 대비 7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국제 항공교통량 중 약 46%가 수도권과 제주 남단을 잇는 동남아·남중국 방면으로 진출입 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경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중국노선의 항공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면 코로나 이전 교통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항공교통량 변동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국 아마추어 합창단 광주서 실력 겨룬다

동구 18~19일 ‘1회 빛의 하모니’

전국의 아마추어 합창단이 광주 동구에서 합창 실력을 겨룬다.

광주시 동구청은 오는 18-19일 이틀에 걸쳐 광주 동구 조선태학고 해오름관에서 전국합창경연대회인 ‘제1회 빛의 하모니’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성악전공자 비율이 15% 미만인 국내 순수 아마추어 합창단을 대상으로 실력을 겨루는 대회다.

일반부 부문에 강동구립여성합창단 등 10개 팀이 참가하며, 60세 이상 나이 제한을 둔 실버부 부문에는 광주북구시니어합창단 등 10개 팀이 참가해 본선 무대에 오른다.

대회 입상자들에게는 대상 2000만원 등 총 상금 3400만원이 주어진다. 대회에는 지난해 8월 아시아문화전당에서 내한공연을 하며 광주와 인연을 맺은 ‘스페인 필리니움 합창단’이 찾아와 초청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동구합창단이 제출한 주민 제안에서 시작했다. 아마추어들이 만들어내는 합창 하모니를 문화축제로 확장하고, 동구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싶다는 취지다.

동구청은 이 제안을 구 사업으로 채택하고 전국 아마추어 합창단이 모이는 대회로 확장했다. 예산 또한 동구청 주민참여예산으로 마련됐는데, 상금·심사위원비·행사비 등 추가 예산을 편성해 총 6400만원을 지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전남대 빛그린 산학융합 캠퍼스 본격 운영

미래 모빌리티 기업들과 연계 교육

전남대학교가 빛그린 산학융합 캠퍼스를 2학기부터 본격 운영한다.

1일 전남대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로부터 빛그린 산학융합 캠퍼스 설립을 최종 인가받아 문을 열게 됐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융합대학 지능형모빌리티융합학과(학부)와 미래모빌리티융합학과(대학

원)가 빛그린 산학융합 캠퍼스로 이전해, 2학기부터 미래 모빌리티 기업들과 산학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빛그린 산학융합 캠퍼스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672번지 일대 1만6500㎡ 규모로 조성됐다.

강의실과 연구실, 실험실습실을 비롯해 최첨단 교육연구 장비 등을 갖췄다.

캠퍼스와 연계된 기업연관관에는 50개 기업이 입주해 대학과 공동으로 연구개발과 실무형 인재

양성을 맡는다.

전남대는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의 광주 빛그린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에 선정돼 빛그린산단 내 산학협력력을 위한 인프라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1년 ‘지능형모빌리티융합학과’를 신설했다.

정성택 전남대 총장은 “빛그린 산학융합 캠퍼스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주도하는 거점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능형모빌리티융합학과를 필두로 지역 산학연과 협력해 미래 모빌리티 분야를 선도할 인재 양성과 학문 생태계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조류 충돌 피해 기록 ‘우리 동네 새 지킴이’ 모집

광주 동물권 단체 ‘성난비건’

광주 동물권 단체 성난비건은 1일 “야생 조류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조류 충돌 피해를 기록할 우리 동네 새 지킴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야생 조류의 경우 건물 유리창이나 아파트 방음벽, 버스 정류장과 유리 난간 등 인공 구조물에 부딪힐 위험이 크다.

이에 성난비건은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겨울 철새), 내년 4월부터 8월까지(여름 철새) 피해를 조사할 지킴이 모집에 나선다.

지킴이들은 조사에 앞서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이력 및 현장 조사 양의를 학습하고 저감조치 촉구 민원 워크숍을 수료해야 한다.

상시 모집으로, 신청은 네이버 폼(https://forms.gle/66b7Vob91ZpPK2z39)으로 가능하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